

의료계·정부 강경 대치

전국 의사 서울서 쫓기대회...광주·전남 600여명 참가
정부, 집단행동 고수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조치 본격화

대학병원 전공의들 '요지부동'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대한의사회(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의료계는 3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대학병원 등지에서는 환자들의 불안감과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의사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전남 의사 600여 명이 상경했다. 이날 광주·전남에서 단체 출발은 250여명에 그쳤지만, 개별적으로 여의도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광주·전남 의료진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최측 추산 광주는 200~250명, 전남 200명의 사가 각각 서울 집회에 참석했고, 200여명의 광주·전남 전공의와 의대생도 상경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모인 의료인들은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로에 가득한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인 지난달 29일이 지났지만, 병원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되돌아 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오늘(3일)까지 복귀하면 선처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에서는 수십명의 전공의

들이 병원시스템에 로그인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말 동안 외래 진료와 없고 긴급한 응급환자 외에는 받지 않아 전남대병원과 조산대병원에서는 큰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지역 3차 병원에는 환자의 발길이 줄었지만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였다.

광주지역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4일부터 정부가 강경대응을 하면 교수와 전임의들도 추가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에서 3번째 현장점검을 진행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최종 파악해 행정조치나 고발 등 사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이탈도 예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날 초 계약종료로 기존 전임의들이 상당수 병원을 떠나지만 신규로 들어와야 할 전임의들이 임용포기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법조치를 진행하면 향후 개인병원은 물론 전임의들과 교수들까지 집단휴업, 연대투쟁,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어 의료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법률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5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3일 오전 화순 청풍면 K-water 홍수조절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대회를 찾은 참가자들이 신호에 맞춰 일제히 출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1정신 기리며 남도의 봄을 달렸다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도심 벗어나 자연 속 힘찬 질주

전국 마라톤러들이 3·1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봄을 달렸다. <관련기사 18·20·22면> 호남 마라톤의 역사인 '제5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3일 화순 청풍면 K-water 홍수조절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발걸음을 한 마라톤러들은 출발 전 만세삼창을 외치며 3·1 정신을 되새겼다. 또 이들은 도심을 벗어나 달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코

스에서 자연 속 질주도 즐겼다.

참가자들은 홍수 조절지 코스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남녀 개인 30km, 하프코스, 10km 레이스에 나서 겨우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점에서 벗어나 온전히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무대이자 국적과 장애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됐다.

인도, 케냐 국적의 외국인 마라톤러들도 질주에 함께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 허드슨(36·전주)씨는 남자 30km에서 1시간 42분 48초 1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첫 외국인 우승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여자 30km에서는 '마라톤 1년 차'인 유미정(50·광주·2시간 12분 56초91)씨가 남다른 달리기 실력을 과시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장애를 딛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뜨거운 응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명호(54·광주)씨가 이날 가이드 러너로 나선 광주철인클럽 소속의 박인재씨와 10km를 달리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일보사와 전남문화, 아시아문화가 주최했으며 마라톤세상이 주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포 책임자·암매장 진실 끝내 묻히나

5·18진상조사위 보고서 공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4년간 활동을 결산하는 '진상규명 조사결과보고서' 일부를 일반에 공개했다.

44만여에 이르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로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도 있으나,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은 밝혀내지 못했고 일부 사안은 오히려 퇴보한 결론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진상규명 종합보고서 발간에 앞서 보고서에 담긴 대정부 권고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29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총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3개를 먼저 공개했다. 직권조사는 법적으로 진상조사위가 규명해야 하는 핵심 과제다.

조사 결과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166명이 사망했으며 261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앞서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는 공식 사망자를 144명으로 집계했으며,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12·12 및 5·18 관련 사건 수사 이후 166명으로 공식화된 바 있다.

사망자 166명 중 135명(81.3%)이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17명은 구타 등 폭력에 의한 사망, 12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행방불명자는 총 179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행방불명 보상신청'을 통해 접수한 242건(중복 신청 포함) 가운데 85명만 행방자로 인정했으나, 진상조사위는 9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나머지 53명은 가족·인우보증인 면담 및 기록 검토를 거쳐 5·18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대학 "신입생이 없어요"	▶7면
팔도 건축기행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1면
광주FC, 서울 꺾고 상쾌한 출발	▶19면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0,00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준수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0,00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Mercedes-Benz Certified